

임상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은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clinical nurses'

Eun-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었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r=.618, p<.001$), 자기효능감($r=.306, p<.001$), 조직몰입($r=.0518, p<.001$)은 안전관리활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을 38.2%로 설명하였다 ($F=20.478, p<.001$). 그러므로, 종합병원간호사의 환자관리활동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적절한 보상 체계의 마련이 된다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안전관리활동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urses at thre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G C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Data collection was from August 20 to August 30,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leadership ($r=.618, p<.001$), self-efficacy ($r=.306, p<.001$), organizational immersion ($r=.0518, p<.0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additio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plained 38.2%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20.478, p<.001$). Therefore, it would be helpful to provide regular leadership education and self-efficacy education to increase patient management activities of general hospital nurses. In addition, if a positive work environment, legal standards for nurse work, and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are establish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Key Words : Self-Leadership,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Park(juliana@kwu.ac.kr)

Received July 30,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Revised August 25,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필요성

2019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 소아, 암환자, 면역억제 질환자들이 코로나19로 다수 사망함으로써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1]. 안전관리활동이란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가 시행하는 모든 간호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관리활동을 하기에는 간호인력과 병원 시스템의 한계, 자원의 부족, 경영진의 부족한 마인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2]. 미국의 경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to error is human)”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시각을 바꿔 놓았다. 즉, 의료진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개념으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 전환을 시작하였다[3].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사고 자체를 의료진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침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 의료사고는 대중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어 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은 거친 비난에 노출된다[5].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관리활동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4시간 환자간호에 임하므로 상대적으로 환자 안전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에 간호사 측면에서 환자 안전사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안전사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임상 경력,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수료 유무, 자기효능감, 조직효능감, 조직몰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6], 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간호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셀프리더십이 강한 간호사는 자신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이 가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며 질적간호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스스로 목표설정과 보상을 조율하며, 자율성을 갖고 구성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구성원 전체에 열정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다[7].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쏠린 시선 즉, 감염병을 옮겨준다는 부정적인 인식, 감염병이 무서워 병원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시선 등에서 동료 보호하고 자율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돕는다. 또한 동료의 자기 진작을 통해 전염병의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을 일깨우고, 서로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동료들을 지키고 돕는데 도움을 준다[1].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는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업무에 임할 뿐 아니라 동료에게 안정감을 주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높은 셀프리더십을 가진 간호사는 병원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이 높은 인력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7].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개개인의 동기부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8].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업무 처리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자신감이 강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대처에서도 매우 유능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보인다[8]. 간호사의 유연한 대처능력은 매 순간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략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직성과의 성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9].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과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인관계를 맺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10].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자발적으로 남아 간호에 전념하는 간호사의 특징이 조직몰입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세대 간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X세대 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자라나 사회적 지위와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적 성취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해 조직몰입이 매우 높다. 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거나 IMF로 인해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양극화 세대인 M, Z세대의 경우, 질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하여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

다[11]. 이에 환자관리활동에 조직몰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2],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이 안전관리활동과의 영향연구[7], 수술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팀워크와 안전관리활동과의 관련 연구 [12], 상급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 안전관리 인식이 안전관리활동과 관련 연구[13] 등 상급병원이나 수술실 간호사에 국한되어 연구된 경우가 다수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병원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과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로,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설문지를 통해 편의표집 형태로 진행되었다.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를 입력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30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해 156부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연구대상 모집이 143명으로 제한되어 최종 143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Manz[14]가 개발한 도구를 Hee[15]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Hee[1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32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Sherer 등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정애순[16]이 번역한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애순[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6이었다.

2.3.3 조직몰입

Mowday(1979)등이 개발한 도구를 이명하[1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 7점 Likert척도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명하[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4이었다.

2.3.4 안전관리활동

이금옥[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금옥[18]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4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었다. 연구자가 3개 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가 설문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25.0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계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31.54±5.25세이었다. 근무부서는 병동이 54.5%, 특수부서가 46.2% 순이었고, 총경력은 3년~5년이 38.4%로 가장 많았고 평균 5.33±5.42년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ears)	≤25	48 (33.5)	31.54±5.25 (years)
	26~29	52 (36.3)	
	≥30	43 (30.2)	
Marital status	Unmarried	80 (55.9)	
	Married	63 (44.1)	
Religion	Yes	66 (46.2)	
	No	77 (53.8)	
Education	College	47 (32.7)	
	≥Bachelor	96 (67.3)	
	Ward	78 (54.5)	
Working department	Special Department	38 (26.6)	
	Etc	27 (18.9)	
	Day work	61 (42.6)	
Working type	Shift work	82 (57.4)	
	≤2	50 (35.0)	
Total career (years)	3~5	55 (38.4)	
	≥6	38 (26.6)	
	Position	Staff nurse	120 (83.9)
≥Charged nurse		23 (16.1)	

3.2 변수의 정도

대상자의 각 변수의 평균점수는 셀프리더십 3.51±0.41점,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0±0.43점, 조직몰입은 7점 만점에 평균평점 4.40±0.48점, 안전관리활동은 3.68±0.45점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N=143)

Variables	Range	Min~Max	Average M±SD
Self-Leadership	1~5	2.45~4.81	3.51±0.41
Self-efficacy	1~5	2.47~4.93	3.70±0.43
Organizational commitment	1~7	1.33~5.60	4.40±0.48
patient safety management	1~5	2.67~4.33	3.68±0.4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F(p)	Scheff's
Age (years)	≤25	3.64±0.41	0.613	.542
	26~29	3.67±0.45		
	≥30	3.66±0.51		
Marital status	Unmarried	3.62±0.40	0.658	.557
	Married	3.81±0.54		
Religion	Yes	3.66±0.44	0.605	.546
	No	3.61±0.31		
Education	College	3.56±0.55	1.906	.153
	≥Bachelor	3.71±0.39		
Working department	Ward	3.77±0.45	1.906	.153
	Special Department	3.81±0.33		
	Etc	3.68±0.27		
Working type	Day work	3.71±0.41	2.064	.141
	Shift work	3.67±0.41		
Total career (years)	≤2	3.68±0.44	1.906	.153
	3~5	3.62±0.43		
	≥6	3.77±0.45		
Position	Staff nurse	3.68±0.40	1.480	.141
	≥Charged nurse	3.67±0.42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안전관리활동과 셀프리더십(r=.618, p<.001), 자기효능감(r=.306, p<.001), 조직몰입(r=.51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Self-Leadership 1	.607** (.001)	.394** (.001)	.618** (.001)
Self-efficacy 2	1	.388** (.001)	.306** (.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3		1	.513** (.001)
patient safety management 4			1

* p<.05, **p<.01.

3.5 대상자의 안전관리활동에 영향 요인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1.815이었으며, 공차한계 (tolerance)는 0.971~0.991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number	0.856	0.581		3.473 (<.001)
Self-Leadership	0.481	0.057	0.179	5.854 (<.001)
Self-efficacy	0.145	0.064	0.129	2.966 (.024)
Organizational commitment	0.264	0.054	0.165	2.941 (.003)
R ² =.395, Adj.R ² =.382, F=20.47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간의 관계 분석 및 안전관리활동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현장의 안전관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3.51점으로 선행연구와 매우 유사하였다[7]. 이는 간호교육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표준화과정인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3.70점으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몰입은 4.40점으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7]. 이처럼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에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사가 임상현장에 주로 남았기 때문으로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관리활

동은 3.68점으로 상급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3.55점 [19],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3.41점[20]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주기적으로 즉각적인 감염교육이 간호사에게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침이 수시로 바뀔에 따라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안전관리활동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교육 등의 감염교육이 공중 매체를 통해 수시로 방영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의 시각 역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결혼 유무, 근무부서, 근무형태, 의료기관 인증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6]. 특히, 선행연구자는 주간근무자가 교대근무자에 비해 집중도와 지각력이 높아 안전관리활동이 상승함을 주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인증 경험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교육과 임상기술 교육이 진행되므로 안전관리활동이 상승함을 주장한다[21]. 수술실간호사의 경우 병동간호사에 비해 환자 교류 시간이 매우 짧고, 상대적으로 고위험 간호가 진행됨으로 자칫 환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관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수술실간호사 대상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 평가에 환자확인에 대한 영역이 존재하여 환자확인을 위한 의사소통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행도가 증가해 환자관리활동이 높아짐을 주장한다 [13]. 그러므로 환자관리활동 상승을 위해 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여 간호사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수술실간호사와 같이 환자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은 곳에 오류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일반적 특성 확대 연구를 통해 관련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20-22],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높아질수록 환자관리활동이 높아졌다[2,7,13]. 이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정기적인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이 필요해 보인다. 조직몰입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직몰입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외형적 근무환경, 근무자 간의 관계, 병원의 적절한 보상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10]. 이에 간호사가 조직에 몰입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의료진 간의 명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기준, 긍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상호교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지원, 업무량과 강도를 고려한 승진, 금전적 보상체계 등이 확고해진다면 조직몰입이 더욱 상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으로 안전관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가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20-21], 수술실간호사 대상의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13,22] 등과 유사하다. 다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향후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활동의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이 안전관리활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조직몰입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활동을 38.2% 설명하였다. 특히, 셀프리더십이 안전관리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종합병원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리더십 교육, 자기효능감 교육 등이 시행된다면 안전관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적절한 보상 체계의 마련 등이 시행된다면 조직몰입 향상을 통해 더 활발한 환자 안전관리활동이 수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G 시의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어려워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향후 이에 셀프리더십과 안전관리활동에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1).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bout Death and Changes in Medical use Exploratory Research, Wonju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Wonju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Research Institute.
- [2] Y. Hwang, M. Y. Kim, J. S. Kang (2016). Perception and Performance about Patient Safety Management for Hospital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2), 39-54. 2016. DOI : 10.35873/ajmahs.2016.6.12.005
- [3] Ballard, K. A.(2003). Patient safety: A shared responsibility. *Online Journal Issues Nursing*, 8(3): Manuscript 4. DOI : 10.35873/ajmahs.2016.6.12.005
- [4] I. H. Kim, " US and Patient Safety Culture-1" , kim il hun column(44), *doctorsnews*, 2003.
- [5] B. Y. Min. (2018. 02. 12). "It is more important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accident than to identify medical accidents and responsibilities." *Oriental Medicine Newspaper*.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714
- [6] M. J. Kim, J. K. Kim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about Patient Safety Culture, Patient Safety Competence, and Safety Nursing Activities of Emergency Room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0), 268 - 279. DOI : 10.5392/JKCA.2017.17.10.268
- [7] S. M. Kwon & M. S. Kwon. (2020). Effect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 284-292. DOI : 10.5392/JKCA.2017.17.10.268
- [8] G. H. Jung & Y. I. Park. (2012). Relationships among Work Stress, Self-Efficacy and the Task Performance of the Precept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1), 151-162. UCI : G704-SER000012100.2012.21.1.010
- [9] S. J. Han, H. Y. Koo (2018).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overload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job involvement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4(1), 89-99.

DOI : 10.5977/jkasne.2018.24.1.89)

[10] Y. H. Han, I. S. Son, K. K. Hwa, K. O. Park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 Korean Clin Nurs Res*, 16(2), 17-31.
 UCI : G704-000921.2010.16.2.005

[11] G. W. Jo & E. J. Kim (2023). Effects of Generation on Professional Prid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spital Nurses: The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endency. *J. Muscle Jt Health*, 30(1), 15-24.
 DOI : 10.5953/JMJH.2023.30.1.15

[12] A. Y. Kim & H. I. Lee (2022). Influences of Teamwork and Job Burnou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Operating Room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8(5), 605-615.
 DOI : 10.5953/JMJH.2023.30.1.15

[13] H. J. Kim & H. J. Kim (2022). Influences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on the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among a Tertiary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8(3), 179-189.
 DOI : 10.11111/jkana.2022.28.3.179

[14] C. C. Manz (1983).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self-leadership.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2(3), 288-297.

[15] C. K. Hee (2003).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bout job satisfaction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master's thesis, Seoul, Korean University.

[16] A. S. J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9738>

[17] M. H. Lee (2009).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2), 363-385.
 DOI : 10.4332/KJHPA.2007.17.1.028

[18] K. O. Lee (2018). *(The) study on nurse manager leadership and patient safety-related nursing activitie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 S. H. Lee & Y. H. Lee (2016). Perception on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 2215-2229.

[20] J. H. Park (2009). Effects of Nurses' Patient Safety Management Importance, Patient Safety Culture and Nursing Service Quality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Tertiary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6(3), 181-191.
 DOI : 10.11111/jkana.2020.26.3.181

[21] K. Y. Kwon & B. J. Oh (2009). Effects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and Self-efficacy on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5(2), 106-114.

[22] H. Kang, S. K. Choi, I. S.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329-339.
 DOI : 10.5762/KAIS.2016.17.9.329

박 은 희(Eun Hee,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 3월-2013.2월: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성인건강문제, 지역사회 건강문제, 보건기초교육 및 연구, 웰리스
- E-Mail : juliana@kwu.ac.kr